

특수배송비 매년 600억 ... 해법은 '오리무중'

제주도민 택배비 타 지역보다 5배 가량 더 부담 업체간 천차만별 요금 정립 등 대책 마련도 절실

제주도로 배달되는 물품 배송비가 타지역 대비 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도민들이 과다 부담하고 있는 특수배송비의 적정 산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국내 주요 10개 도서 지역 특수배송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평균 배송비는 2596원으로 다른 지역 527원보다 4.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인터넷 쇼핑물 등을 통

한 상품 주문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한다는 특수 여건 때문에 특수배송비 형태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제주도민 택배 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택배 한 개당 해상 운임 원가는 500원, 택배 요금은 25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지역 특수배송비는 매년 600억 원을 넘고 있어 제주도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특수배송비 부담 경감은 민선7기

원희룡 도정의 공약사항이다. 제주도는 자율적 배송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특수배송비 택배 비용 비교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건의한 결과 추가 배송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제주도의 정책은 자율 경쟁을 유도하는 것일 뿐, 업체간 천차만별인 제주 특수배송비 요금을 통일시키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승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경쟁으로 인해 택배 배송비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도서·산간지역 특수배송비는 늘고 있는 추세"라며 "국토교통부 등과 논의를 통해 특수배송비 요금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017년도에 국토부에서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가 이뤄졌으나, 업체 측의 반발로 무산된 걸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 제주도에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특수배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11일 금요일 음 7월 24일 (1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주	60%
30%	성산	60%
30%	고산	20%
30%	서귀포	60%

주간예보

내일	호리고 비	21/27°C
모레	구름 많음	21/26°C

호리고 비

제주도는 호리고 오후부터 산지와 북부, 동부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22°C, 낮 최고 기온은 26-27°C로 예상된다.

해돋이 06:15	달맞이 06:15
해질미 18:46	달짐 10:56
물때 만조 03:22	간조 10:56
18:44	10:56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위험	자외선지수 보통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제주 학교서 유해 3D프린팅 소재 사용

도내 113개교 중 23개교 희귀암 유발 'ABS' 이용 도교육청 "안전대책 수립"

3D프린터를 보유한 제주 학교 10곳 중 2곳 이상이 희귀암을 유발하는 유해 프린팅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에 따르면 제주 도내 초·중·고교 중에서 3D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총 113개교(초 53·중 37·고 23)다. 이 가운데 유해 프린팅 소재인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을 3D프린팅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20.3%인 23개교로 나타났다. 사용 방식으로 따지면 ABS를 다른 소재와 혼용해서 사용하는 학교가 17개교, ABS만 사용하는 학교도 6개교에 달했다.

ABS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나노 입자(1/1만mm 미만의 초미립자)를 분당 약 2000여개를 방출시킨다는 이유로 유해성이 지적된 소재다. 이와 관련 지난 7월에는 3D프린터를 학교 현장에서 자주 사용했던 교사 2명이 잇따라 희소암의 일종인 '육종' 확진을 받았으며, 이중 1명은 사망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0일 '3D프린터 메이커 교육 활동시 안전관리 주요 내용'을 안내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도 같은달 25일 3D프린터 사용시 유의사항을 첨부한 긴급 공문을 각 학교에 하달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역시 개별 학교에 ABS 소재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강민정 의원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은 직후인 8월 7일 각 학교에 3D프린터 활용 유의사항 및 안전지침을 공문으로 보냈다"며 "후후 교육청 차원에서 안전 대책이나 매뉴얼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학생인권 조례 조속 제정을"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촉구

시민단체인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10일 논평을 내 제주학생인권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인 학생이 학교

안에서 부당한 차별이나 폭력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과거처럼 학생이 교사 또는 학교로부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을 방지하고 학생이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천부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조례의 근본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갈색얼기니새, 다시 자연의 품으로...10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 해안에서 태풍 '마이삭' 때 탈진해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지회에 의해 구조됐던 희귀종 갈색얼기니새가 무사히 회복해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가철새연구센터와 한국조류보호협회는 공동으로 이 갈색얼기니새에 위성추적기를 부착해 이동경로를 연구할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강력 행정처분에 축산악취 민원 줄었다

제주시, 8월까지 557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0% 감소

제주의 고질적 민원으로 꼽히는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줄어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 저감을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처분과 야간단속 강화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제주시는 올들어 8월까지 접수된 축산악취 민원이 557건으로 작년 동기(702건) 대비 20.6%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2018년 같은기간 민원은 70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양돈농가가 밀집한 한림지역이 185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애월 175건(31%), 동 지역 103건(18%) 등이다.

올해 민원접수 유형은 전화 311건(55.8%), 당직 민원 198건(35.6%), 인터넷 민원 48건(8.6%)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축산악취 민원이 줄어든 이유로 여름철 긴 장마와 태풍 등 날씨 영향도 있지만 올 2~4월 1차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한 16곳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농가의 개선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제주에선 처음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2개월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2차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농가의 경각심도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7-8월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 이행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축산 부서, 민간단체 합동점검을 벌였다.

특히 시는 야간에 축산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해안동, 애월읍 광명·고성, 한림읍 금악지역을 중심으로 축산악취 유발 행위(돈사 창문 개방·폭기시설 집중 가동 등)와 악취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악취가 심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내린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민원 다발 농가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통해 악취를 저감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RIPC 제주지식재산센터

제14회 제주특별자치도민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연장공모

응모기간 2020년 9월 25일(금)까지

응모대상 제주특별자치도민 누구나

응모분야 일반부문, 기업부문, 학생부문

※ 공고일(7.1)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기업)

응모범위

- 공고일 현재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발명아이디어에 한함 (단, 본인 명의로 출원 중인 경우는 가능)
- 타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는 제외
- 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없음, 공동발명의 경우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
- 응모시 발명아이디어의 요지를 설명하는 설명서 작성

응모방법

- 접수 : 우편 및 팩스, 온라인(e-mail)접수
- 우편 :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1003호 제주지식재산센터
- 팩스 : 064-758-2169 → 이메일 : rotc2522@hanmail.net
- 신청양식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참조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 문의처 : 제주지식재산센터 김석훈 연구원(070-4566-9107)

시상규모

구분	일반부문	기업부문	학생부문
대상	특허청장상(1인)	특허청장상(1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상(1인)
금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1인)	한국발명진흥회장상(1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상(1인)
은상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상(1인)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상(1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상(2인)
동상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상(1인)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상(1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상(3인)
입상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상(3인)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상(3인)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상(5인)
특별상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상		

※ 수상자 혜택 - 부상 : 일반부문·기업부문 최고 100만원, 학생부문 최고 50만원
- 국내 지식재산 출원 비용 우선 지원